



“다시 한 번 세계 미술계에 한국 현대미술의 성장과 잠재력을 선보입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후원, 글로벌 미술한류 프로젝트 ‘코리안 아이’, 2011-2012 전시계획 발표

-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지속적인 한국 현대미술 후원을 통해 세계에 한국 브랜드를 알리고 세계 미술계가 한국 현대미술을 주목하는 특별한 기회 도모
- 2011년 뉴욕 아트디자인박물관, 2012년 런던 사치갤러리 등 국제적 명성높은 갤러리 전시 진행

2011년 9월 5일, 서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SC제일은행 지주사)가 후원하는 한국현대미술작가 전시회인 ‘코리안 아이’가 ‘에너지와 물질(Energy and Matter)’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부터 뉴욕 아트디자인박물관(Museum of Arts and Design)에서 열린다. 또 내년에는 런던올림픽이 열리는 7월부터 사치갤러리 전관 전시를 진행한다.

뉴욕 전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런던 전시는 사치갤러리 전관에서 2012년 7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런던 전시는 사치갤러리 25년 역사상 최초로 사치의 자체 컬렉션이 아닌 작품들로 구성되는 대규모 컬렉션으로 전 세계가 한국 현대미술을 다시 한 번 주목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안 아이는 국제 무대로 뻗어나가는 한국 현대미술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와 잠재력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2009년 ‘문 제너레이션(Korean Eye: Moon Generation)’과 2010년 ‘환상적인 일상(Korean Eye: Fantastic Ordinary)’이라는 주제로 런던, 싱가포르, 서울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전시를 진행하여 총 50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국제적인 전시이다.

리차드 힐(Richard Hill)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SC제일은행장은 “1880년대 말에 한국에 진출한 스탠다드차타드는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 의지를 보여왔다. 코리안 아이 역시 그러한 의지와 스탠다드차타드의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간 한국 비즈니스를 세계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듯이 한국 현대미술을 통해 한국 문화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다” 고 소감을 밝혔다.

데이비드 시클리티라(David Ciclitira) 코리안 아이 공동 설립자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코리안 아이의 성공과 성장은 세계 미술계에 많은 놀라움을 전하고 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의 후원에 힘입어 지난 2년 만에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어 감사하다.”며 “올해 뉴욕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인 아트디자인박물관에서의 전시와 2012년 사치갤러리 전관 전시는 세계 미술계가 다시 한 번 한국 미술을 주목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부터 코리안 아이와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나이젤 허스트(Nigel Hurst) 사치갤러리 CEO는 “최근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국 신세대 유망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코리안 아이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코리안 아이는 한국 현대미술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의 작품에는 한국 현대생활의 모습이 녹아 있으며 작가 각자가 개성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전달함으로써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코리안 아이는 2011년과 2012년 전시 계획 발표와 함께 9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국내 프리뷰 전시를 갖는다. 9월 5일은 오후 2시부터, 9월 6~9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

코리안 아이 (Korean Eye)

비영리재단인 코리안 아이는 한국현대미술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미술이 해외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미술이라는 신흥 미술시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리안 아이’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후원으로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2009 코리안 아이: 문 제너레이션’



런던 전시회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며 약 3개월 연장 전시된 바 있다. 또한, 2010년 ‘코리안 아이: 환상적인 일상’은 7월 런던 사치갤러리, 10월 싱가포르 아츠하우스 전시에 이어 G20 정상회의로 세계의 이목이 서울로 집중된 11월 한달 간 경희궁과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전시를 진행한 바 있다. 코리안 아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50만 5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은 국제적인 미술한류 프로젝트이다. 또한 2010년 7월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의 지원으로 한국 현대 미술작가들을 소개하는 385페이지 분량의 최초의 영문 서적 <코리안 아이: 한국 현대 미술>을 세계적인 출판사 스키라(SKIRA)를 통해 출판했으며, 올해는 코리안 아이를 즐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을 통해 코리안 아이 전시를 즐길 수 있다. 2011년 코리안아이 전시는 주 후원사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외에 파트너후원사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및 사치갤러리, PCA(Parallel Contemporary Art Group)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스탠다드차타드 (Standard Chartered)

스탠다드차타드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선두은행

스탠다드차타드 PLC는 선도적인 국제 은행으로서 런던 주식시장, 홍콩 주식시장, 그리고 인도 뭘바이 주식시장에 상장 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시장에서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이익과 수익 중 90% 이상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 창출된다. 이러한 지역에 집중적인 영업을 하고 고객과 심층적인 관계 구축에 매진한 결과 스탠다드차타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스탠다드차타드 그룹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70여 개 마켓에 1,700여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85,000여명의 직원에게 도전적이고도 흥미로운 국제 커리어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기업사회책임, 환경 보호 및 직원 다양성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은행으로 널리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유산과 가치는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 (히어 포 굿)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 자세한 정보는 www.standardchartered.com 를 참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주식회사는 400여개의 영업점을 보유한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 제일은행)을 비롯해, 스탠다드차타드펀드서비스(SC 펀드서비스), 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SC 스탠다드캐피탈), 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SC 저축은행), 스탠다드차타드증권(SC 증권) 등, 5개 자회사 등을 총괄한다.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 제일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주식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8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SC 제일은행은 1929년 조선저축은행으로 출범하여 1958년 제일은행으로 은행명을 변경한 이후 기업금융에 강점을 가진 은행으로 활동해 왔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인수 이후, 2005년 9월 12일 새롭게 태어난 SC 제일은행은 성공적인 통합 작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SC 제일은행은 ‘성장을 위한 한국 최고의 금융 파트너’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제일주의’에 따라 기업금융 고객에게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시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며, 소매금융 고객에게는 혁신적인 상품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SC 제일은행은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한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의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의 정신하에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tandardchartered.c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